

타가정을 탐험하는

이행청소년들을 위한

안내서가 될지 알되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안내서**”



여는 말

나름 안내서가 탄생하기까지 3p

Part 1.

덜 개고생하는 탈가정을 위한, 탈가정 생존 팁 6p

Part2.

당신이 몰랐을 탈가정 청소년이야기 18p

부록 28p

여는 말

탈가정을 탐험하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안내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안내서가 탄생하기까지

‘탈가정 청소년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손가락질 받아 왔을까? 가출은 그저 몇몇 ‘비행’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잠시 잠깐의 ‘일탈’일 뿐일까? 집을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에 우리 사회가 쥐뿍만큼의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었나? 이런 질문들이 이 작은 책을 만들게 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정해진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쉽게 딱지를 붙이곤 합니다. 이 사회는, 집과 가정 등 사회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만 그제야 사람대접을 해줍니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원래 정해진 대로만 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출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사회는 비행, 탈선, 위협의 이미지를 덕지덕지 덧붙입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말하지요.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집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곳인가요? 집과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한 곳이어야만 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현실과 사회가 냉엄하고 날카롭다면, 그에 비해 집과 가정은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라구요. 하지만 집과 가정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곳일까요? 자기 집이 아닌, 보호자의 집에 얹혀사는 사람들에게 집이란 어떤 곳일까요? 집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달리게 되는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집이란, 어떤 곳일까요?

왜 ‘가출’이 아닌, ‘탈가정’이야?

앞서 말한 ‘집’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울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안내서』는 기존의 생각과 시선들을 찬찬히 헤집어 보려고 합니다. 집은 좋은 곳이고, 아이들은 당연히 원래 가족과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집을 나온 청소년을 대하는 부정적인 시선 등에 대해서요.

이를 위해 일단, 우리는 이 안내서의 제목이 말하듯 ‘가출’이라는 말 대신 ‘탈가정’이라

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탈가정’은 이미 몇몇 가출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말이지만, 아직 제대로 설명되어진 적은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가출’이 아닌 ‘탈가정’이라 이름 붙인 이유가 뭐냐구요? 무수히 많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사용했던 단어, ‘가출’엔 삐딱선을 탄 청소년이 저지른 나쁘고 위험한 문제라는 사회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던 생각들이 이 ‘가출’이란 단어를 이미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름, 안내서』에서 이야기하는 ‘탈가정’은 가출을 좀 더 생소한 언어로 바꾸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의 입장을 생각하게끔 하려는 말입니다. 가정을 탈출하기를 선택해 ‘탈가정’ 청소년이 된 사람들을, ‘가출’이라는 이슈의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말이요.

“문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시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과 기존 사회가 ‘문제’라고 부르던 집 나온 청소년을, 탈가정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어봅시다. 비행이 아닌 선택과 자립의 문제지요. 그리고 이 선택에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도 던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뭐 하려고?

이런 고민을 나누기 위해 『나름, 안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덜 개고생하는 탈가정을 위한, 탈가정 생존 팁>에서는 어떻게 하든 개고생하기 마련인 탈가정과 자립을 조금 덜 개고생하며 할 수 있게끔 하는 팁과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탈가정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집을 나오기 전에 미리 고려하면 좋을, 집 밖에서의 삶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떠돌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가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과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정말 진실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탈가정 청소년 이야기>는 집을 나온 탈가정청소년 두 명의 인터뷰입니다. 이들이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집을 나온 이후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름, 안내서』가 아주 기똥차고 알찬 정보를 가득 담고 있다고 물으신다면, 확신하지

는 못하겠네요. 때로는 이 책보다 더 전문적인 곳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에 담긴 이야기만큼 이 사회에서 '탈가정'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가정을 선택한 여러분과 우리들의 상황·조건이 지금 당장은 열악하지만, 우리들의 이 '집 나온 후, 자립'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진정한 자립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걸음에 이 책이 작은 힘을 보탬 수 있길 바랍니다.

PART. 1

덜 개고생하는 탈가정을 위한, 탈가정 생존 팁

STEP 1. 살던 집을 무사히 나오기!

STEP 2. 탈가정 후, 붙잡히지 않기!

STEP 3. 집 밖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기!

STEP 4. 이제, 어떤 삶을 살지 잘 선택하기!

#1 덜 개고생하는 탈가정을 위한, 탈가정 생존 팁

이 글을 읽는 어떤 비청소년¹⁾들은, “아니 무슨 가출을 하는데 팁까지 필요해? 조직적인 범죄집단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깟 가출’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원하는 기간 동안 제대로 탈가정을 하고, 자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탈가정을 하고 난 다음 청소년이 이 비청소년 중심의 세상에서 얼마나 험난하게 고통 받아야 하는지, 이 ‘팁’들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출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탈가정이란 선택을 한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섹션의 목표랄까요?

물론 우리가 여기 적은 팁들이 탈가정한 청소년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만병통치약 호랑이연고는 되지 못할 겁니다. 이 팁을 정리하기 위해 여러 탈가정 경험자와 탈가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지만, 빠뜨린 것들도 있을거고, 상황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을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가정 청소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덜 개고생하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당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STEP 1. 살던 집을 무사히 나오기! - 무사할 수 있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1) 옷

급하게 뛰쳐나오느라, 아니면 머릿속에 다른 걱정이 많아서 갈아입을 옷을 깜박했다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집을 나오는 경우엔 옷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장기간의 탈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아예 살던 집에서부터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경우에는 갈아입을 옷을 챙겨 나오는 게 좋을겁니다. 살던 집을 나와서 갈 다른 곳이나 안정적인 제 2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는 좀 낫겠지만, 거리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테니 일교차나 추위, 위생 등을 생각해서 옷을 챙겨보아요.

1) 20살이 넘어 ‘성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성인’이란 단어에는 ‘완성되었다’는 뜻이 들어있고 청소년을 부르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성인 대신 비청소년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 현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이니만큼 가능하다면 돈을 챙겨 나오는 게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나 통장은 추적당해 경찰에 잡혀갈 위험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이 '추적'에 대해선 STEP 2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웬만하면 현금을 챙기는 것이 좋아요.

3)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

우리도 이미 듣고 보고 알다시피, 탈가정을 한 청소년들을 고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도덕교과서에서도 '비행청소년'의 주요 특징으로 '가출'을 꼽고 있구요. TV 프로에서도 종종 '위기의 청소년'이나 '무서운 10대'를 취재했다면서 살던 집을 나온 탈가정청소년들을 무슨 괴물 보듯 방송하기도 합니다. 탈가정청소년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가정청소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단,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까를 궁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이란, 며칠 정도 우리를 재워줄 수 있는 친구여도 되고, 부모동의서 없이 알바를 해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청소년이어도 좋습니다. 서로서도 도움이 되고, 이해할만한 신뢰가 쌓인 관계면 더욱 좋겠지요.

혹시 그럴만한 사람이 없다면, 이 『나를 안내서』 마지막 장에 있는 <부록>에서 연락할만한 곳들을 찾아보길 바라요.

STEP 2. 탈가정 후, 붙잡히지 않기!

"원하지 않은 때에 강제로 붙들려 살던 집으로 소환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법에는 "친권"과 "거소지정권"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 친권자²⁾, 후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는 법이죠. 원래 이 법은 '가족 모두가 호주(주로 아버지)가 지정하는 장소에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내가 어디 살아야 하는지 남편이 지정한다는 이 내용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

하지 않는 의미를 담게 되기에, 1990년에 이런 내용은 폐기되었다네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지 청소년을 비청소년과 평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들은 여전히 친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살아야만 합니다.

설명이 길어졌지만 요약하자면 이런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와서, 탈가정청소년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부모나 친권자는 우리가 살던 집을 나간 후 24시간 뒤 경찰에 가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갖은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추적한 뒤 거의 무조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거예요. 친권자가 지정한 거소(거주하는 장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설령 가정폭력이 있었다라도, 그간 증거를 제대로 모아두지 않았으면 경찰은 어쩔 수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낼 거라고만 합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에서, 탈가정청소년 본인들의 생각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탈가정을 하는 이유에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때에 억지로 집으로 강제소환되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래의 ‘붙잡히지 않기 위한 방법’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STEP 2의 경우, 읽으면서 유독 (괜히) 스릴 넘치고, 범죄자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세탁해야 하는 것이 탈가정청소년의 현 실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집을 나와서 따로 살고 싶을 뿐인데, 혹은 집을 나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할 뿐인데, 감옥에서 탈옥하는 사람처럼 별 희한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탈가정청소년들이 집을 나온 이유가 있을텐데, 그걸 들어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집으로 몰아넣으려는 사회 때문에 청소년들은 아래의 팁에서처럼 휴대폰, 인터넷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청소년들이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탈가정청소년에게 더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 된다는 걸 모두들 알면 좋을텐데 말이에요.

1) 핸드폰

핸드폰은 집을 나오기 전에 끄고, 유심을 분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출신고가 들어간 뒤에는 핸드폰 유심을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위치추적 시, 핸드폰이 마지막

2) 앞으로 부모님 대신에 친권자란 말을 쓸거예요. 청소년 중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친권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친척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 둘 다가 아니라 아빠나 엄마 중 한 명과 사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 이유로 좀 더 중립적인 친권자라는 표현을 쓸 테니 양해바랍니다.

으로 꺼진 장소가 뜨기 때문에, 집을 나온 다음 휴대폰을 끄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거예요.

굳이 경찰에 가출신고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부모나 친권자가 핸드폰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더더욱요.

아이피추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개인정보 퍼가요~♡’ 하는 어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탈가정 후 ”유심 뺐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휴대폰을 켜다가 네이버 자동로그인ㄱ, 위치추적잠ㄱ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살던 집 나오기 전에 미리 자동로그인 처리가 된 어플들을 다 로그아웃시키거나, 앱을 지웠다 새로 깔아서 로그인 정보를 지우고, 인터넷 앱의 경우도 쿠키 삭제 후 자동로그인을 해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통신사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자기 명의 핸드폰의 최근 2주간의 문자/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명의의 휴대폰 또한 당연히 친권자가 조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가정 후 지낼 장소에 대한 계획 등을 자기 휴대폰으로 통화/문자/카톡을 사용해서 얘기하거나, 본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나, 본인 이름의(프로필 이름이 본명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접속해서 종종 사용했던) SNS 계정 등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카톡의 경우 문자와 전화보다도 보안이 더 떨어진다는 소문이 있구요.

2) 교통카드

티머니나 캐시비 등, 청소년 인증을 해서 청소년할인을 받는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이라면 미리 일반교통카드를 사두는 것이 좋을거예요. 청소년 인증은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위치추적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3) 통장

청소년의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도 친권자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벌거나 모아둔 돈이 출금금지 당해버리거나, 통장사용 내역으로 인해 위치추적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탈가정청소년들은 주변의 믿을만한 친구 등에게 도움을 청해 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알바 월급을 받거나, 생활비를 옮겨 쓰는 방식을 흔히 씁니다. <탈가정 생존 팁> 섹션을 작성하기 위해, 인터뷰한 한 탈가정청소년의 경우 이런 조

언(?)을 해주었습니다.

“집 나오고 나면 위치추적 때문에 이래저래 다른 사람 이름 빌릴 일이 많기 때문에 명의 빌려줄 사람을 미리 섭외해주는 게 좋음. 월급통장 개설해주고, 알바 할 때 명의 빌려주고, 식당의 경우 보건증 발급받아줄 사람. 네이버아이디 정도는 없으면 불편하니까 네이버 등 사이트들 계정 빌려줄 사람이나, 휴대폰을 자기 명의로 개통해줄 사람 등등(까지 필요해)”

하지만 이 경우엔 차명계좌로 처리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청소년을 무조건적으로 원래 가정에 가두어두려고만 하고,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나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법 밖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STEP 3. 집 밖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기!

"어디서 살고, 어떻게 돈 벌고, 아플 땐 어떡하나."

1) 거주지

집을 나오고 나면 안정적인 거주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2015년 현재,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찜질방과 PC방 출입이 제한됩니다. 친권자가 출입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출입 가능하죠. 설령 출입동의서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찜질방에서 부모님께 전화해보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단속기간에는 꼼짝없이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걸 공중위생관리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탈가정 후 잘 곳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나오기로 결정한 후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미리 알아보고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 받아주지 않는 쉼터들도 꽤 많습니다. 성소수자인게 밝혀진 뒤 쉼터에서 쫓겨나 강제구가 조치를 당했다는 탈가정청소년들의 일화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믿을만한 쉼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마지막 섹션인 <부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탈가정청소년이 있으면 공동주거생활을 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공동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공간들은 STEP 4. 이제, 어떤 삶을 살지 잘 선택하기! 의 1) 자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2) 알바(아르바이트) 구하기

모아뒀던 돈을 가능한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게 좋다고 했지만, 탈가정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자립을 생각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알바를 해야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많아요.

음식점, 카페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신체를 검사한 뒤 증을 발급하는 데까지는 일주일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발급비용은 2015년 기준으로 1500원입니다. 보건증은 발급받았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때 집에 끌려갈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사람의 경우, 탈가정을 하기 이전에 보건증을 미리 발급받아두는 게 안전하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알바 때문이 아니라라도 여러 이유로 필요한 때가 꽤 있으니, 넉넉하게 몇 장 뽑아서 잘 보관하고 있는 게 좋다고 하네요.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만 15세부터 부모동의서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도요. 그래서 알바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요규 부모동의서는 만15세부터 만18세까지의 청소년이라면 모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모동의서를 받지 않고 청소년을 일하게 해주는 사업장도 있지만, 그럴 경우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월급을 떼먹는다면, 열악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탈가정청소년들이 아는 비청소년의 명의를 빌려 알바를 구하거나, 부모동의서를 위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 위법이지만,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립을 금지해버리면서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사회의 문제가 반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겁니다.

연락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거주지랑 연락수단(핸드폰)이 안정되지 않으면 알바 구하기가 더 힘들고, 알바가 안 구해져서 돈이 없으면 더욱더 거주지와 연락수단이 불안정해져서 혼돈과 불안의 무한굴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탈가정청소년은 아예 기숙사 딸린 공장 같은 데로 들어갔다가 돈 모아서 나오고, 그 돈으로 폰과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

이라는 팁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과,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주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손님이 적다고 나가서 쉬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 선 시간만큼은 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휴, 야간수당들도 모두 지켜받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받아야 하는 월급을 떼이거나,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상담을 원할 때는 알바노조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병원

돈도 없고 아플 때는 답이 없습니다. <부록>에 적힌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연락해보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 응급약품을 지니고 있거나, 응급실 등을 소개해줄겁니다. 서울에는 “서울시청 소녀건강센터 ‘나는봄’” 등의 시설도 있어요. 아무튼 <부록> 확인!

STEP 4. 이제, 어떤 삶을 살지 잘 선택하기!

1) 자립. 쉼터와 공동주거(살던 집에서 나와 홀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자립을 생각하는 탈가정청소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20살이 넘은 ‘성인’에게만 경제권과 자립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12월31일과 1월1일에 어떤 마법이 일어나서 인간을 성숙한 시민으로, 순식간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20살의 1월1일 이전이라도, 본인의 결단과 나름의 이유가 있으면 청소년의 자립을 보장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죠. 비록 사회가 우리, 청소년에게 자립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지만, 이 많은 제약들을 넘어서라도 청소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장소들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원래 가족과 따로 떨어지더라도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 주로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지역들에는 탈가정/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종종 성소수자를 받지 않거나, 통금을 두거나 하는 식의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큰 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는 곳인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확률이 높아요. 쉼터에 대한 정보는 마지막 섹션

인 <부록>에 적어둘테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쉼터에 가지 않고 싶다면, 공동주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생활하면 생활비와 월세 등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주거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탈가정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의 삶을 살려줄 수도 있으니, 의지할 사람 한 명 없는 것보다야 나은 상황일거구요. 물론 사람이 모이면 학교나 회사와 똑같이, 이러저러한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거예요.

탈가정청소년들의 공동주거공간으로는 부천 “모두들”, 중장기 쉼터 “앨리스의 집”, 인천의 “비행” 등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에서는 요리와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직접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독립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겁니다. 이 역시 <부록>에 연락처를 적어둘테니, 필요하면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될 겁니다. 이 공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다고도 볼 수 있을거예요. 혹은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에 전화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이나 쉼터의 정보를 알려줄거예요. 이것도 부록 참조!

2) 협상과 화해를 하는 법.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모든 탈가정이 꼭 원가정과 떨어져서 자립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선택은 아닙니다. 탈가정을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할거예요. 살던 집에 계속 붙어있기 너무 힘들어 잠시 바깥 바람을 쐬며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영영 바뀔 것 같지 않은 딱 막힌 집안에, 내 의견을 도무지 들어주지 않는 집안에, 내 목소리를 내는 ‘저항’의 의미로 집을 나오는 경우도요. 지금부터는 그런 ‘저항’을 위한 일시적인 탈가정 후 집으로 잘 돌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던 집을 탈출하여 바깥세상에서 살아가는 법만큼이나, 살던 집에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갈지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 『나름 안내서』를 읽는 사람 중에, 여기 적힌 “협상”이라는 단어가 어딘지 불편한 이도 있을 겁니다. 뭔가 괜히 싸움 거는 느낌일 수도 있을거예요. 그렇지만 청소년은 비청소년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착하게 ‘대화’ 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억압적인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애’로 뭉쳐있는 혈연가정 속에서는 더욱 그렇구요.

엄마나 아버지는 “다 우릴 위해서”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용돈이나 핸드폰도 뺐고, 억지로 학원에도 보내고, 몇 시 이후에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자녀인 우리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집안현실을 바꿔보려면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펼치는 ‘협상’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협상’을 하기 위해 집을 나오려고 하는 경우, 일단 먼저 차분하게 계획을 짜보는 게 좋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오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 살던 집의 친권자나, 다른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 무엇을 요구할지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으면 나중에 친권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탈가정청소년은 “집안 공기가 너무 숨이 막혀요.” 라고 부모에게 말한 후 집을 나왔는데, 그의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감을 못 잡고 ‘그저 한 때의 사춘기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집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는데, 나름 저항의 몸짓이 그저 “사춘기 한 철의 질풍노도” 정도로 치부되는 건 좀 그렇잖아요? ㅠ 뭐 물론, 말로 정리할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하겠지만, 정리가 가능한 요구들이라면 명확히 해보는 편이 대화하기에 편할거예요. 가령 “6시 통금은 너무 비인간적이다! 나는 통금을 없애거나, 대충 11시쯤은 집에 들어오는 느슨한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는 식으로요.

집을 나가는 이유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ex. 왜 나간다는 이유를 적은 쪽지를 놔두지 않았거나..) 자신의 의지로 집을 나간 가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한 실종인지 구분이 안 가서 친권자가 실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나갔을 때는 친권자에게 “나는 안전한 공간에서 잘 지내고 있고, 집에서 나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집에 들어갈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을거예요. 가출신고의 경우 자신의 의사로 집을 나간 것이기에 시급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래서 집을 나간 후 24시간 뒤에 신고 가능하지만, 실종신고의 경우 범죄와 연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즉시 경찰에서 위치·카드 추적 등이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 전화로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의 말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적기 때문이지요.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 친권자가 다짜고짜 힘을 사용해서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구요. 그러니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되도록 문자나 이메일을 연락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생각도 해보고, 수정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권자와 우리(자녀)가 동등한 위치의 사람이라면 뭐 굳이 이런 세세한 대화의 방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으니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겠지요. 집안마다 분위기가 케바케일거예요. “집을 나갈 정도로 불만이 컸군” 이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가정이 있는 반면, “감히 네가 집을 나가?” 하면서 더욱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여기서 하는 말은 그렇기에, 그냥 참고용으로 읽어주세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원합니다!

PART. 2

당신이 몰랐던 탈가정 청소년 이야기

비행 청소년, 범죄 집단...

우리 사회에서 '가출 청소년'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Part.2 <당신이 몰랐던 탈가정 청소년 이야기>에선 그런 '비행 청소년'들이 왜 집을 나왔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현재 18살로 탈가정 중인 청소년 김지수(가명)씨와 과거 탈가정을 경험했던 22세 최지은(가명)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이야기가 탈가정 중인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안될지도 모르겠지만!

“탈가정, 하면 개고생이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 탈가정청소년 김지수 (가명)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할게.

안녕. 나는 김지수(가명)이라고 해. 지금은 18살이고, 3년 전인 15살 때 집을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탈가정 청소년으로 지내고 있어.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집 나 오고 이 곳, 저 곳 사는 곳을 옮기다가 지금은 혼자서 자취하고 있어.

15살 때 집을 나왔다고? 집이 어땠어?

나는 그 당시에 부모가 원하지 않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부모는 나에게 공부를 하라는 압박이 많이 심했었어. 중1때부터 매일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고 지냈어. 근데 항상 공부하러면서 정작 내 학교생활이나 성적이 어떤지 별로 관심도 없었어. 사실 부모는 내 성적도 잘 모르면서 그냥 버릇처럼 공부하라는 소리를 달고 지냈지. 그리고 집에서 내가 하는 시민단체 활동 관련된 얘기 나오면 자주 맞았어. 주말에 단체 활동을 하러 밖에 나갈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시민단체 활동이냐면서 부모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나는 많이 맞았어. 가끔씩은 머리를 후려치기도 했는데 만화에서만 보던 눈 위로 별이 보인다는 게 진짜라는 걸 그때 알았어.

집은 어떻게 나가게 됐어?

어느날 아침에 아빠가 나한테 “너 그 등수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 못간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등수는 사실 내 실제 성적보다 훨씬 낮은 등수였어. 그래서 내 성적이 그렇지 않다고 난 몇 등이라고 얘기를 하며 다뤘어. 그때 갑자기 아빠가 얼굴 빨개져서 씩씩대고 와서 머리를 갈기더라. 너무 심하게 맞아서 더 맞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있었어. 예전에 오빠가 맞을 때마다 식칼을 드니까 더 때리지 못하는 걸 봤었거든. 그러니깐 일단 때리는 건 멈췄어.

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추스르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20분 지나니까

학교 안가냐고 아빠가 방문을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했어. 그 식칼을 가방에 그대로 넣어 나와서 집 근처 아파트공원에 숨어있었어. 근데 그 당시로부터 얼마 전에 오빠가 한번 외박을 했다가 진짜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학교 안 간 걸 부모가 알면 또 맞게 될까봐 집을 나가기로 했어. 그래서 아빠가 출근했을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다시 가서 짐을 싸서 나왔어.

집을 나오고 어디서 지냈어?

처음에는 자취하던 친구들 집들을 옮겨 다니면서 지냈어. 그당시 돈이 없어서 알바를 구해야했는데 나이가 15살이기도 해서 잘 구해지지도 않았어. 그래서 친구가 하는 재택 알바를 조금씩 하거나 얻어먹고 친구 집이나 아는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겨우겨우 생활했지. 그리고 나서는 애인을 사귀게 되어서 한동안은 애인과 같이 살기도 했어.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했어?

알바를 해야 했는데 처음 집 나왔을 때는 15살이라 알바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어. 운 좋게 나이를 속이고 알바를 구해도 보건증 떼오라는 말에 며칠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재택알바를 조금씩 하면서 근근이 버텼지. 16살 때까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나이 속이고 알바를 했어. 그리고 열일곱 살이 돼서야 내 이름으로 알바를 할 수 있었지.

무슨 알바였어?

고깃집 알바였어. 그때 내가 알바 해본 적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일해보라고 면접 자리에서 유니폼을 주더라.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 시급이 달라질 거라고 했어. 월급 받을 때쯤에 시급을 정해서 계산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시급이 4200원이 될 수도 있고 4900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 그 당시 최저시급은 4860원이었는데 말야. 그건 나중에 노동청같은 곳에 신고해서 받으면 되니까 큰 상관은 없었어. 고깃집 알바도 전에 해 본적이 있어서 할만 했고. 그런데 일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나 면접 봤던 점장이 나를 부르더니 “좀 웃으면서 일을 해라, 여자가 웃어야 된다, 웃어야지 시집도 잘 간다”고 하면서 계속 내 등을 쓰다듬더라. 퇴근하고 생각해보니 이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전화해서 그만둔다고 말하고 월급을 받으러 갔어. 그런

데 점장이 나한테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습기간으로 쳐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거야. 나는 그게 불법이라고 했지. 그 말을 하니까 점장이 처음에는 받을 돈 어차피 얼마 안 되니까 언제든지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대로 주려면 다음 달에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를 일한 걸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었어.

그만됐는데 열일곱살인 내가 알바를 구하기는 너무 힘들었어. 그러다가 빵집 알바가 겨우 구해졌어. 일한 지 며칠 뒤에 사장이 나를 부르더니 나는 일하는데 표정도 안 좋고 서비스 정신이 없는 것 같다며 훈계를 하면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 그 빵집에서 쫓리고 얼마 뒤에 다른 고깃집에서 일하게 됐어. 그 당시 알바가 안 구해져서 바로 그 고깃집에서 일을 했어. 시간대는 저녁 7시부터 새벽 1,2시까지였고 주6일 근무였는데 주말에 못 쉬고 평일 중에 하루를 쉴 수 있었어. 그러다보니까 힘들긴 했는데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다른 일을 구하기는 어려웠지.

알바비 떼먹힌 적은 없었어?

당연히 있었지. 그 고깃집에서 5달을 일했어. 최저임금을 아주 조금 넘기는 시급을 받고 일했어. 그런데 야간수당, 주휴수당도 못 받았어. 그렇게 못 받은 돈을 계산해보니까 170만원정도 되더라. 그래서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서류를 보냈어. 그래서 사장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서 체불임금을 같이 계산해봤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수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릴 줄은 몰랐다, 열일곱살짜리가 돈 몇 푼 가지고 이래도 되냐”는 말을 했어.別に 별 소리를 다 들었어. 나는 그냥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말이야. 사장이 또 나한테 170만원 다는 못주겠다고 했어. 돈을 다 받아내려면 시간도 더 걸릴까봐 더 이상 돈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150만원을 겨우겨우 받아냈어.

지금은 어떻게 지내?

고깃집 알바를 그만두고 지금은 사무직 알바를 하고 있어. 전에 하던 일보다는 힘쓸 일도 없고 밤에 일하는 것도 아니라서 괜찮은 거 같아. 일한지는 1년 반 정도 됐어. 그리고 애인이랑 같이 살다가 헤어지게 되어서 돈을 모아 얼마 전에 이사를 갔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7만 원짜리 집이야. 반지하이긴 한데 여름에 곰팡이가 조금 피는 거랑 화장실 문이 안 잠기는 거, 창문을 못 열어 놓는 것만 빼면 지내기는 괜찮아. 이번에 집 계약 할 때도 내 이름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스무 살인 친구랑 같이 살 거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친구 이름으로 계약했어. 그래서 나 혼자 사는 집인데도 수도세 두 명 분을 내고 있어.

오늘 긴 얘기 해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짧게 한마디만 할게. 이건 내가 자주 평소에 하던 말인데 탈가정은 하면 개고생이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

“힘든 시간을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시원하면서 울적해”

- 탈가정청소년이었던 최지은 (가명)

나이는 22살이고 이름은 최지은이라고 해. 열다섯 살에 집을 나왔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전북의 한 터미널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

15살에 집을 나왔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였어?

아빠의 폭력 때문이었어. 아빠는 술을 안 마신 날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술을 먹은 날이면 늘 폭력적으로 변했어. 나를 발로 밟기도 하고, 언어폭력도 심했고… 때리는 데 별다른 이유도 없었고, 아빠한테 맞아서 피가 많이 나기도 했어. 아빠가 술을 마시기만 하면 폭력이 늘 심했어. 엄마 말로는 아빠의 폭력은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뱃속에 있을 때도 도망기도 했다.

집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

어느 날 집에서 엄마의 통장을 찾았어. 거기에 80만원이 있었는데 하필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져있더라. 그때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빠가 술 먹은 날이면 맨날 맞고 도망다니는 게 너무 지겨웠어.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도망쳤어.

집을 나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어디야?

pc방. pc방은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은 못가니까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갔어. 일부러 허름하고 장사가 잘 안 되는 pc방을 찾아가기도 했구. 다행히 쫓겨나진 않았어. 며칠 동안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자면서 지냈어. 안정적으로 지낼 곳이 없어서 조금 불안했지만 당장 해방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 불안해도 아빠의 폭력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

돈이 다 떨어지곤 어디로 갔어?

나는 주로 쉼터에서 지내곤 했어. 80만원이 다 떨어질 때쯤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봤던 청소년 상담전화가 생각났어.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일단 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던 1388 쉼터에 갔어. 일주일 정도는 있을 수 있는 단

기 쉽터였어.

처음 살아보는 쉽터에서의 생활은 꽤 괜찮았어. 미술 심리치료나 요리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재밌었어. 일주일 뒤에 거기에서 만난 친구랑 함께 쉽터를 나왔어. 그 친구를 따라서 요새 흔히 말하는 ‘가출팸’에 갔어. 한 친구의 집에서 여러 명이서 지냈어. 그 친구들이랑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서로 상황이 비슷하다보니 순식간에 가까워졌어. 생활비는 내 친구들이 성매매를 해서 번 돈으로 충당했어. 친구들이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들였어.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의리라는 명목 하에 친구들이 번 돈으로 생활할 수 있었지. 자고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먹고 노는 게 일상이었어. 그러다 거기도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올 때가 되어서 나갈 때가 되었어.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거 같아.

그리곤 다른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쉽터로 갔어. 그 쉽터에서는 학교를 다니게 해서 갑갑했어. 담임선생님도 계속 학교 오라고 그러고. 마침 쉽터도 학교 근처더라고. 내가 뭘 어떻게 했겠어. 학교 가라고 하면 가야됐지. 학교에서 나는 존재감이 없는 문제아였어. 앞드려서 자고 친구들이랑 가끔씩 담배피고 놀러다니는 그런 존재였어. 그때 나는 학교에 흥미 자체가 없었거든.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듣고 나머지 시간엔 맨날 잠만 잤어.

쉽터가 좀 엄격하진 않았어?

그렇게 많이 엄격하진 않았어. 쉽터에 몇 가지 생활규칙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담배는 하루에 3개피만 피기’, ‘금연패치 붙여보기’ 같은 거가 있었어. 그리고 최대한 선생님들이 문화생활 하라고 에버랜드, 동물원, 노래방 이런데도 다 같이 가기도 했어. 생활하기에 나쁘진 않았는데 그 쉽터에는 자주 나갔다가 들어갔어. 쉽터를 나가선 애들이랑 pc방이나 모텔 같은 데서 자고 그랬어. 쉽터가 갑갑했거든. 자꾸 학교 가라고 하고 말이야.

쉽터에서 살면서 부모님이랑 연락은 했어?

응. 그 때 아빠는 술을 약간 줄여가는 듯 했어. 내가 계속 집에 안들어가니까 집에서든 애가 땀나봐. 그래도 연락해서 내가 쉽터에서 선생님들한테 보호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고 하나까 계속 쉼터에서 살게 해준 것 같아. 선생님들이랑 동행하고 몇 번 만나기도 했어.

그 쉼터에는 얼마나 있었어?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는 2~3개월 정도 있었던 거 같아. 그리고 나서는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수시로 집도 다녀오곤 했어. 그 때 아버지가 술도 덜먹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렇게 한 달 정도 버텼을까? 한 달 정도 나 때문에 술을 안 마시다가 아버지의 술과 폭력이 다시 되풀이 되었지. 결국 중독은 중독이더라고. 그때 나는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중학교 2학년 유급됐어. 집에서 중졸 검정고시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 버티고 집을 다시 나왔지.

집을 나와서 간 곳은 어디야?

서울! 그냥 차라리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느니 다른 지역에 가고 싶었어. 무작정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간 게 서울이었어. 서울에 와서 또 쉼터생활이 시작됐지. 노원에 있는 쉼터였는데 2~3달 정도 지냈어. 그런데 종교 강요가 심했어. 내 생각으론 교회에서 후원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주말마다 무조건 교회에 가야만 했어. 그리고 쉼터 소장이 폭언을 하거나 차별을 하기도 했어. 어떤 언니가 밥을 먹을 때 찹찹거리는 소리를 줬나봐. 근데 소장이 “에미없는 년인 거 티내냐.”는 말을 하더라고. 내 얘기는 아니었지만 정말 기분이 나빴어. 나는 부모님이랑 연락도 되고 가끔씩 용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무시를 덜 당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저런 대접을 받았어.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나는 다른 쉼터로 옮겨갔지. 성당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쉼터였는데 종교 강요는 훨씬 덜했어.

그리고 그 때 쉼터 수녀님이 검정고시를 못보고 나왔으니까 학교를 다녀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주셨어. 찾아보니까 2년만 다니면 졸업이 되는 대안학교가 있더라. 그 학교를 5개월 정도 다니다가 말았어.

학교는 왜 그만뒀어?

거기 학교에서 만난 내 또래의 친구들과 노느라 학교도 계속 빠지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도 그만두고 쉼터도 나왔어. 이때 내가 17살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팬츠아졌다고 생각해서 또 부모님 집으로 갔어. 집에 가서 착실하게 검정고시 준비를

하려고 했지.

그런데 아빠가 날 감금하기 시작했어. 아빠가 외출하면 밖에서 지물쇠로 문을 잠그고 나갔어. 우리 집은 화장실이 문밖에 있어서 아빠가 없으면 화장실도 맘대로 가지 못했어. 너무 갑갑하고 힘들었어. 그래서 3일 만에 화장실 가는 척 하고 집을 나갔어.

그리고 알바를 구하고 친구네 집에서 지냈어. 그 때 학교에서 만난 선배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 남자친구도 아빠의 폭력을 못 견디고 14살에 집을 나오게 된 사람이었어. 그래서인지 만난 지 단 시간 안에 공감대가 생겼어. 하루는 나에게 그래도 부모님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 무서우면 같이 거주하겠다고 해서 남자친구랑 같이 집에 갔어. 나랑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아빠가 “이게 이제 남자를 끌고 들어와”라며 낫을 들고 쫓아왔어. 가위로 내 머리를 자르고 남자친구 목살을 잡고 엄청 때렸어. 너무 놀라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아빠한테 정말 심하게 맞았는데도 경찰이 와서 하는 소리가 “니 아빠가 니가 집을 나가니까 당연히 그렇지. 나 같아도 내 딸이 집 나가면 그러겠다.”였어. 그래도 경찰이 오고 나니 사건은 일단락되었어. 그리고 다시 나는 아빠에게 ‘감금’ 당했어. 아빠한테 내가 알바를 하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했어. 아빠는 술을 먹지 않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몇 개월 공부해서 18살되던 해, 4월에 중졸 검정고시를 합격했어. 그때 아빠도 기뻐했는데 합격하고 얼마 지나니깐 또 아빠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어. 그걸 못 견뎌서 다시 집을 나와서 서울로 갔어. 한 5개월 정도 서울에서 알바를 하면서 친구 집에서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야. 내가 계속 안 받으니까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더라.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에 계시다고. 그걸 듣고 ‘집 들어오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나’, ‘정말 무슨 일이 있나’ 반신반의하며 새벽에 첫 차를 타고 가서 내려갔어. 병원에 가보니까 엄마도 낮이 나가 있고 아빠가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것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더라. 그리고 다음날 밤에 돌아가셨어. 겨우 겨우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치르다 보니 카드빚이 좀 생겼어. 생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뒤로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 엄마는 김밥 천국에서 김밥 말고, 나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며 19살을 맞았어.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전북에서 엄마랑 살고 있어. 마트 일은 그만뒀고 집근처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어.

이번 인터뷰 하니까 어때?

힘들었던 시간을 얘기를 하니깐 기분이 시원하면서도 울적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말하고 나니까 15살부터 집 나와 지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던 거 같아. 지금도 탈가정 중인 청소년들도 많을 텐데 다들 고생하면서도 견뎌나가길 바래.

부록

아래에 나와 있는 표는 우리가 집을 나왔을 때, 긴급하고 일시적이거나, 비교적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모든 단체나 기관들이 소개된 것은 아니지만(전국의 모든 곳들을 쓰려면 이 안내서의 종이가 모자랄 지도 몰라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곳들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숙박을 원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지내다보면 꼭 있어야 할 물품들, 다치거나 이플 때 유용한 비상약,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 등을 받을 수도 있으니 내가 있는 곳 주변에 어떤 곳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요!

청소년지원시설(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서울	새날을여는 청소년쉼터	02-2616-6255
	십대여성인권지원센터	02-6348-1318
	유프라시아의 집	02-2614-5808
	평화의 샘	02-825-1272
	씨튼해바라기의 집	02-747-1260
	우리들쉼자리	02-765-0635
부산	구세군 샬리홈	051-517-3254
	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	051-253-0270
대구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수지의집	053-741-3122
경남	경남 범숙의 집	055-298-1318
	로템의 집	055-292-4747
광주	푸른꿈터	062-232-8297
대전	우리청소년쉼자리	042-226-6300
전남	사)나누리회 부설 해아림	061-753-3644, 3654

청소년쉼터 (서울)

강남구청청소년쉼터	02-512-7942
강서청소년쉼터	02-2697-7377
서울시립금천청소년쉼터	02-3281-8200

서울시립신림청소년쉼터	02-876-7942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02-718-1318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여우별	010-9884-1318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우리별	010-4156-1318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작은별	010-5795-1318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더(THE)작은별	010-7577-1318
서울특별시립청소년드림쉼터	02-2051-1373
성심디딤돌쉼터	02-2688-1318

청소년관련 단체 및 기관

긴급지원	청소년전화	1388	각종 위기상황,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1577-1391 신고 112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해바라기센터(보라매)	02-870-1700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법률, 의료 등)
드롭인센터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나무 (장승배기)	010-7788-7947	청소년 카페, 일시쉼터, 긴급 지원
	서울시교육청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02-877-1388	학교밖청소년전용공간, 긴급 지원, 상담
거리 아웃리치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010-9604-1318 010-9605-1318	거리아웃리치 청소년긴급지원
	청개구리(부천)	010-3679-9271	부천 거리아웃리치

자립	청소년자립팜 이상한나라	02-863-8346	청소년 주거공간
자립	십대여성인턴십센터 새날에오면	02-2616-6255	십대여성 인턴십
	청소년자립훈련매장 커피동물원	02-2164-4721	십대여성자립매장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02-871-1598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인권	인권교육센터 들	02-365-5412	인권 교육 및 인권 운동
	인권교육 온대(수원)	031-548-2105	인권 교육 및 인권 운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070-4228-1908	청소년인권운동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hwalgy.net/	청소년인권운동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땡'	02-924-1224	청소년성소수자 지원
인권	알바노조	02-3144-0935	알바인권, 청소년 노동 상담 및 교육
교육	마포 늘푸른자립학교	02-326-1318	십대여성 대안교육, 검정고시
	노원 늘푸른자립학교	02-939-1319	십대여성 대안교육, 검정고시
	꿈꾸는아이들의학교	02-855-2529	청소년 대안학교
	들꽃피는학교	031-486-8836	대안교육(안산)
	서울시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02-2675-1319	학교밖청소년상담, 교육, 네트워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용인)	031-333-1900	청소년 심리 치료 및 재활

의료	서울시청소년건강센터 '나는봄'	02-6227-1541 010-4621-1541	여성영학과, 치과, 검진, 각종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성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02-2676-1318	성상담 및 성교육
	탁틴내일	02-3141-6191	성상담 및 성교육
	십대여성인권센터	02-6348-1318 010-3232-1318 cybersatto(카톡)	성매매피해청소년 각종 지원
성	여성위기 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	성상담, 폭력, 가출, 미혼모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성상담, 성폭력
	다시함께센터	02-814-3660 02-817-8297	성매매 여성상담 (법률*의료지원, 쉼터연계)
	애란원	02-393-4725	미혼모 생활시설 및 각종 지원
중독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02-3660-2580	인터넷중독 면접상담신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02-2677-2245	약물남용상담, 예방교육
법률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032-655-4620	청소년 사건 변호 및 상담, 법 률 교육

탈가정을 탐험하는

이행청소년들을 위한

안내서가 될지 알지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안내서”

만든곳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후 원 :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발행일 : 2015년 7월 2일

문 의 : 070-4228-1908

asunaro@asunaro.or.kr